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4.(월) 18:00 (총 6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장 김용상 사무관 한명주	전화번호	062-720-0332

북극발 한파 광주, 전라남도 영향, 이번 주 강추위와 전남서부 많은 눈

- 이번 주말 광주, 전라남도 영하 10℃ 내외 강추위, 체감온도 더욱 낮아
 - 8~9일 영하 10℃ 내외로 떨어지는 등 한파 내습
 - 수도관, 계량기 동파, 정전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- 이번 주(6~10일) 광주, 전라남도 많은 눈
 - 전남서부 최대 30cm 이상 많은 눈 주의



[1월 7일 오후 예상 기압계 모식도]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이번 주(6일(수)~10일(일)) 동안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광주, 전라남도에 강추위가 지속되겠고, 7일(목)~9일(토)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. 또한 이 기간 광주, 전라남도에 눈이 내리고, 특히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, 기록적인 강추위와 많은 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동아시아~베링해 부근의 기압계 이동이 매우 느려진 가운데, 시베리아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대기 상층(고도 5km 이상)에서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자리 잡은 ①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정체·회전하면서 -50℃ 안팎의 강한 한기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,
 - 대기 하층(고도 1.5km 이하)에서는 대륙고기압(우리나라 북서쪽)과 저기압(우리나라 북동쪽)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②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
 - 대기 상·하층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며 주말까지 광주, 전라남도에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, 눈이 자주 내리며 특히 전라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.

[추위 전망]

- 찬 공기가 점차 유입됨에 따라 6일 밤부터 기온이 낮아져 6일(수) 아침에 광주, 전라남도 내륙을 중심으로 -5°C 이하로 떨어지겠고, 7일부터는 낮 기온도 -4°C 이하로 떨어져 당분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특히 8일(금) 아침은 일부 광주, 전라남도 내륙을 중심으로 -10°C 내외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, 이번 주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고,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.
- 또한 7~9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°C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다음주 중반, 13일(수)경 평년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, 이후에도 추운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온예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.

이번 주 예상기온 경향(℃, 광주광역시 기준)



-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“주말까지 -10℃ 내외의 매서운 한파가 영향을 주는 만큼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와 노약자는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함은 물론 수도관, 계량기 동파, 보일러 파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, 겨울철 농작물의 냉해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하였다.

[눈 전망]

- 6일 오전, 북쪽으로부터 더욱 강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6일 저녁부터~10일까지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다소 긴 기간 동안 최대 30cm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, 특히, 7일에서 8일 오전까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

- 6일 오전 서해안에 시작된 눈은 밤에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고, 7일 새벽에는 광주, 전라남도에 눈이 내려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내리는 만큼,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하였다.

- 또한, 7일부터~10일에는 다소 긴 시간동안 눈이 이어지면서 전남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.

- 그러나, 8~10일까지 예상되는 눈은 아직 기간이 멀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수시간, 지역,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 예보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,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와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6일 밤부터 전남서해안을 시작으로 7일 새벽에는 전남 남해안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초속 20m, 시속 70km 이상)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.
-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초속 10m, 시속 35km 이상)이 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, 9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(해상) 6일 밤에 서해남부해상을 시작으로 7일 새벽에는 남해 서부해상에서 50~72km/h(14~20m/s)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2~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.
- 특히 7일은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서부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이상의 매우 높은 파고와 함께 72km/h(20m/s)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풍랑경보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,
- 이번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은 남해서부해상은 9일 밤, 서해 남부해상은 10일 새벽에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- 또한, 서해상은 물결이 높은 가운데, 눈 구름대가 발달하여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겠다고 전했다.